

문헌고찰을 통한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 전망적 자질 연구의 중요성*

함성득*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 아래서 '대통령의 리더십'(presidential leadership)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 즉 '대통령의 성격 또는 속성'(presidential character/attribut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적이지만 잠재적인 요소, 소위 'X 요인'으로서 자질은 그 이론적·현실적 중요성은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그에 대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낮아서 이론적으로 토론과 논리를 전개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기초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먼저 성공한 대통령의 자질을 추구하는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가 갖는 그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적 적실성, 그리고 제한점을 살펴보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성공한 대통령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대통령의 자질연구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의 이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성, 정직성 등의 '회고적'(retrospective) 자질연구 보다 비전 제시능력 등의 '전망적'(prospective) 자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대통령, 리더십, 전망적 자질, 비전

* 이 논문은 문헌고찰을 통한 비교연구로서 미국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분석은 함성득(2007)에 많은 부분 기초하였다. 또한 저자는 전망적 자질의 토론과 관련 임동욱 교수의 많은 조언에 감사를 표한다.

** 카네기-멜론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조지타운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Governance」의 편집인(Managing Editor)과 1997년 미국행정학회(APSA) 연례학술회의 준비위원장(Program Chair)을 역임했고 현재는 「Administration & Society」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대통령학, 예산·재정정책, 산업정책이며 저서로는 「대통령학」(2판, 2003)과 「장관론」(공저, 2003) 등이 있다(hahm33@hotmail.com).

I. 머리말

노무현 대통령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그 동안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제왕적 군주상’을 허물어뜨리는 ‘권위주의 문화’ 타파에 노력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 언행은 그의 지지층에게는 짜릿하고 시원한 감동을 주었고 또한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들의 권위주의 문화를 빠르게 청산하면서 ‘탈권위주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함성득, 2005; 2007).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정심을 잃은 ‘파격적 언행’ 또는 ‘경박한 막말 정치’로 인해 대통령직을 포함한 다른 제도적 또는 정치적 기관들에 대한 ‘권위’가 급격히 실종되는 반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은 그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감과 경멸감을 높였고 그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켜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며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북한 핵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더 위험하다’라는 농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이제 탈권위주의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화 과정으로부터 이룩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평정심을 잃은 파격적 언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 즉 ‘대통령의 성격 또는 속성’(presidential character/attribute)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¹⁾ 다만 ‘대통령 리더십’(presidential leadership)의 핵심적이지만 잠재적인 요소, 소위 ‘X 요인’으로서 비전, 성격, 인격, 덕목 등과 같은 자질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적 적실성은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지표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리더십 또는 자질의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낮아서 이론적으로 토론과 논리를 전개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X 요인의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적 적실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

1) 우리 국민들은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질(63.2%)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정책 및 공약(29.6%) 등을 꼽았다(동아일보, 2007년 6월 1일).

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Burns, 2006; 정윤재, 200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기존의 ‘문헌연구’를 기초로 대통령 자질연구의 이론적 중요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먼저 성공한 대통령의 필수적인 자질을 연구하는 ‘한국 대통령의 자질 연구’가 갖는 그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적 적실성, 그리고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성공한 대통령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 또는 자질연구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특히 자질연구의 이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성, 정직성 등에 초점을 두는 ‘회고적’(retrospective) 자질연구 보다 비전제시능력 등에 초점을 두는 ‘전망적’(prospective) 자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I. 대통령 자질연구의 중요성과 한계

1. 대통령 자질연구의 중요성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 그 핵심적 자질에 대한 규범적 연구의 현실적 중요성은 최근 미국 대통령직의 ‘개인화 경향’(the highly personalized nature)이 두드러져 대통령 자질의 특성이 국정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임자들의 자질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살펴보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보다 나은 국정운영 결과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해봄으로써 성공하는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Glass, 1985; Greenstein, 2000: 189).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 그 핵심적 자질연구의 이론적 중요성은 첫째, 성공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 그의 자질연구를 통해 그 성공의 잠재적 요소를 찾아내어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실패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

런 그의 자질 분석을 기초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실패의 잠재적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의 바람직한 자질과 관련하여 우리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자질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윤재(2003: 478)는 “...한 국가나 조직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지도자에 의해 완전히 배타적으로 좌지우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의 역할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 리더십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치현상을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게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발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발전 및 변화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황’(the time)과 ‘영웅’(the man)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그 영웅 또는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또는 자질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하여 주요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지대하여 대통령의 리더십 또는 자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는 특정 대통령의 인격과 성격, 즉 심리학적 요소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특정 대통령의 자질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그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대통령학’에서는 ‘제도적 및 조직적 접근법’과 대비하여 ‘자질론 중심의 개인적 및 심리적 접근법’이라고도 한다(함성득, 2003).

2. 미국 대통령 자질연구의 이론적 발전과 그 한계

이론적으로 리더십 또는 자질론적 접근법은 연구의 초점을 대통령 개인의 성격과 행태(정책결정 및 협상)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통령직을 상당히 개인적, 즉 특정 대통령 중심의 ‘단일기관’으로 보며, 연구의 대상기간을 특정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정하는 매우 단기적 시각을 갖고 있다(Pika, 1982; Greenstein, 2000).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 대통령 연구에서 ‘행태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행태주의는 두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환경이 만

든 주어진 제약 속에서, 그 성격과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그 제약점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둘째, 환경은 항상 변화라고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자질 요소들이 제도적 또는 조직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태주의 영향아래서 리더십의 자질연구와 관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석방법은 첫째, Barber(1972 ; 1992)의 개인의 개성, 세계관, 행위방식에 기초한 적극-긍정, 소극-부정 분석법이다.²⁾ 둘째, Burns(1978)의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전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분석법이 있다. 일상적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리더십이다. 반면 전환적 리더십은 국정운영 비전, 탁월한 도덕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큰 희망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리더십이다(함성득, 2003). 그 외에도 Lasswell(1930)의 리더십에 대한 ‘선동가형’(agitator), ‘행정가형’(administrator), ‘이론가형’(theorist)의 분류와 Hook (1943)의 ‘대세주도형’(event-making man)과 ‘대세편승형’(eventful man) 등의 분류도 있다. 이러한 자질연구와 관련 그 이론적 논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보편적 자질과 상황적 자질연구의 중요성

보편적 자질론의 관점에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성공한 지도자의 핵심적인 자질은 Charles Merriam에 의하면 ‘고도의 사회적 감수성’(a high degree of social sensitivity), ‘고도의 친근성’(a high degree of facility in personal contacts), ‘집단을 이끄는 재능’(great facility in group contacts), ‘극적인 표현능력’(facility of dramatic expression), ‘정책이나 전략을 만드는 능력’(facility in invention, whether formulas,

2) Barber(1972; 1992)는 미국 대통령의 성격 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재임대통령의 ‘활동 에너지’와 ‘직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적극-긍정형’, ‘적극-부정형’, ‘소극-긍정형’, ‘소극-부정형’으로 분류해 대통령의 심리적 특성과 국정운영 결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Barber(1992)는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해서 미래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arber(1992)의 분류는 너무 단순하여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이중적 성격을 가진 대통령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많은 학자들은 Barber(1992) 분석틀의 예측성을 부정하고, 기껏해야 그의 분석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심리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함성득, 2003; Campbell, 1993; Greenstein, 2000; Pfflner and Davidson, 1997).

policies, or plans), ‘고도의 용기’(a high degree of courage) 등이다. 또한 Max Weber는 지도자의 핵심 자질로 ‘정열’(Leidenschaft), ‘책임감’(Verantwortungsgefühl), ‘판단력’(Augenmass) 등을 핵심적인 보편적 자질로 강조하고 있다(손혁재, 2007 참조).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자질연구의 이론적 약점은 특정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통령이 처한 시대상황에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 달라야 한다는 ‘상황적 자질’의 중요성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일관되게 성공적인 대통령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시대적 위기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만 성공한 대통령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성공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경우 특정 대통령이 처한 ‘시대적 상황’(the era)과 ‘지도자’(the man)의 맥락, 즉 ‘시대정신의 구현’ 관점에서 규정되었다(Barber 1972; 1992; Lonnstrom and Kelly, 1997; Simonton, 1987).

상황적 자질론에 의하면 시대가 다르면 지도자의 유형도 달라져야 하며,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과 자질도 시대에 따라 조금은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의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대통령에게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국정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다르면 지도자도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핵심적 자질의 추출이 그 만큼 더 어렵다는 것으로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좋은 자질’이 다른 경우에는 ‘나쁜 자질’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도덕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덕성이 뛰어난 Carter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Carter는 이러한 도덕성을 모든 부분,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 당시 남한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 등의 관계에서 그들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규정한 도덕성의 잣대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또 다른 예로 Carter는 ‘공익’의 개념에 매우 충실하여 백악관 직원들의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코트 사용권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였다(Whitcomb and Whitcomb, 2000: 421). 반면 Eisenhower 대통령은 재임 중 골프를 너무 즐겨서 대통령의 업무를 비서실장과 많은 각부 장관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이 행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

면서 매우 효율적인 행정부를 이룩하였다(Greenstein, 2000).

2) 특질이론과 환경적 이론의 중요성

이러한 보편적 및 상황적 자질연구와 관련하여 밀접한 이론적 논쟁은 자질이 지도자가 이미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가이다. 즉, 자질론 중심의 개인적 및 심리적 접근법에서 리더십 이론은 크게 자질론 또는 영웅론의 ‘특질이론’(trait theory)과 ‘환경이론’(environment theory)으로 구분된다. 또한 환경이론은 크게 후천론 또는 교육론과 상황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03: 111 참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자질론에서 리더십은 지도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통사람들과 달리 출중한 외모와 목소리, 탁월한 통솔력, 뛰어난 문제 분석력 및 업무통제력, 미래에 대한 비전 등 독특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 다는 것이다. 둘째, 후천론에서 리더십은 본인의 노력, 교육의 영향, 경험의 결과, 즉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상황론은 리더십이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자질이 잘 결합되거나 조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비이성적 요인과 이성적 요인의 중요성

자질연구에서 심리분석적 접근방법은 지도자의 인간내면적 요인, 특히 비이성적 요소 예를 들어 Sigmund Freud의 성적욕구, Carl Jung의 정신병리학적 접근 등을 분석하거나 인간 행동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정치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리더십 내지 자질은 억압되어 쉽게 표출되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이며 잠재의식적인 내면세계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비이성적 요인에 치중하는 접근법은 지도자의 가치관, 사상, 의지 등 인간행동의 이성적 또는 합리적 그리고 의식적인 요인들을 분석에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높다(정윤재, 2003: 50; 482). 실제로 Burns(2006: 19)는 인간행동의 합리적이면서 의식적인 요인을 강조하며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롯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도된 변화의 잠재력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얼마만큼 자신의 사회적 출신과 성장 경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고, 그 운명을 통제하고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주장했다.

4) 회고적 자질과 전망적 자질의 중요성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좋은 자질연구에서 강조하는 도덕성, 청렴결백성, 정직성 등의 자질들은 평가 대상인 인물의 삶의 역정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회고적 자질’이다. 반면 이러한 회고적 판단에 기초한 좋은 자질만큼 중요한 것이 ‘전망적’(p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전망적 자질’이다. 전망적 자질은 평가대상인 인물의 삶의 역정에 기초하여 앞으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서 추상적으로는 ‘꿈’ 또는 ‘장밋빛 청사진,’ 구체적으로는 ‘비전제시능력’ 등을 의미한다(Glass, 1985; Greenstein, 2000).

이러한 회고적 자질과 전망적 자질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져왔다. 예를 들어 1988년 공화당의 Bush 부통령과 민주당의 Dukakis 지사의 대결에서는 회고적 자질이 전망적 자질보다 그 중요성이 높았다. 그러나 1960년 민주당의 Kennedy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Nixon 부통령과의 대결 및 1992년 민주당의 Clinton 지사와 공화당의 부시 부통령간의 대결에서는 전망적 자질이 회고적 자질보다 그 중요성이 높았다. 다만 회고적 자질이 전망적 자질보다 상대적 중요시될 때는 선거운동 과정의 초점이 후보자의 인격 또는 성격에 맞추어져 ‘부정적 선거운동’(negative campaigning)의 경향이 높아진다. 반면 전망적 자질이 회고적 자질보다 상대적 중요시될 때는 선거운동 과정의 초점이 후보자의 정책에 맞추어져 ‘정책대결’ 중심의 ‘긍정적 선거운동’(positive campaigning)의 경향이 높아진다.

그러나 위에서 이론적 논쟁점 중심으로 살펴본 대통령 개인 중심의 자질론적 접근법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첫째, 학문적·이론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연구결과의 일반화 또는 객관화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이론적 가치가 약하다(Pika, 1982). 둘째, 이러한 개인적 성격연구는 그 연구방법으로 주로 개인적 면담, 개인 전기, 신문기사, 나아가 통치자료에 의존하는데, 자료의 객관성과 계량적 연구를 위해 측정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즉 ‘조작화’ 및 ‘지표화’가 어렵고 저널리스트틱해서 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ampbell, 1993).

Ⅲ. 한국 대통령 자질연구의 현황과 그 한계

1. 한국의 자질연구: 리더십 유형화와 규범적 자질연구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하여 한국의 대통령이 국가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질 또는 심리적 요인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또는 조직적 요인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인적 자질 요인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함성득, 2003). 즉 한국 대통령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인하여 이들 대통령의 자질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자질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론 중심의 개인적 및 심리적 접근법아래서 한국 대통령 연구는 특히 Barber(1972; 1992)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 기초하여 이에 따른 리더십의 유형화에 치중하였다. 실례로 Barber(1992)의 설명에 맞추어 구광모(1984)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부정형으로, 한승조(1992)는 이승만을 ‘옹고집형 지도자’로 박정희는 ‘공격적인 집념의 지도자’로, 전두환은 ‘저돌적이나 순진한 지도자’로, 노태우는 ‘신중하게 몸사리는 지도자’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김호진(1997; 2006)은 이승만은 ‘가부장적 권위형’, 장면은 ‘민주적 표류형’, 박정희는 ‘교도적 기업가형’, 전두환은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는 ‘소극적 상황적응형’, 김영삼은 ‘승부사적 성취형’, 김대중은 ‘계몽적 설교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안병만(1998)은 박정희를 적극-긍정형으로,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은 적극-부정형으로, 장면은 소극-긍정형으로, 그리고 노태우는 소극-부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김종석(2006)은 Carl Jung의 정신분석심리학을 도입하여 박정희는 ‘내향적 사고직관형’, 김영삼은 ‘외향적 감정감각형’, 노무현은 ‘외향적 사고감각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화를 기초로 박세일(2002)은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개혁적 변혁적 리더십’, ‘전문 국가경영형 리더십’, ‘감성지도형 리더십’, ‘민주적 국제적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필

요한 덕목으로 ‘정직과 국민사랑 그리고 자기희생의 열정’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청사진 개발’ ‘천하의 최고 인재 등용’ ‘자신을 낮추고 남의 이야기 경청’ ‘엄격한 자기관리’ ‘국정시스템 운영능력’ ‘역사의 교훈 습득 능력’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2000)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으로서 핵심 자질과 관련 ‘비전제시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도덕성’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운재(2003; 2007)는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사상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등을 강조하였고 규범적으로 필요한 덕목으로 ‘분명한 이념과 노선에 기초한 국가경영 비전 제시능력’ ‘말 잘하는 언어능력’ ‘민주주의의 건장한 제도화에 일관된 삶’ 등을 주장하였다.

2. 한국에서 자질연구의 이론적 한계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화와 규범적 자질론에 치중한 한국의 자질론적 또는 심리적 접근법도 연구의 초점을 대통령 개인의 성격과 행태(정책결정 및 협상)에 두고 있다. 이러한 특정 대통령 중심의 자질론적 연구의 이론적 약점으로서 한국의 경우 첫째, 특정 대통령의 통치자료가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정확과 객관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현실(이정식, 1994 참조)에서는,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이러한 자질연구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이러한 자질연구는 그 연구결과의 이론적 객관화 또는 일반화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러한 개인성격 및 심리적 요소 위주의 접근법은, 과거 특정 대통령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그 특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할 뿐, 앞으로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03 참조).

둘째, 이러한 자질연구는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한 분석적 또는 학문적 연구라기 보다는 인물소개 형식의 신문기사 또는 주간·월간잡지 게재, 나아가 홍보용 자서전 형식이 주종을 이루었다(이종범 편, 1994 참조).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분석으로서 과학적이지 못하여 설명력과 타당성이 높은 일관성 있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자질연구는 그 조작화 또는 지표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론에 기초를 둔 경험적 및 계량적 접근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는 덜 체계적이며 나아가 이론적 성숙이 미약했다. 즉, 자질 연구가 방법론적인 면에서 사실서술에 치중하고, 조작화 또는 통계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낮은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³⁾

넷째,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가 대체적으로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보다는 인물대결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질연구도 특정 대통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삶의 역정에 초점, 즉 회고적 자질에 그 중요성을 두어 대상 인물의 ‘정치적 미화’ 또는 ‘정치적 공작’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군부 독재자들의 찬양을 위한 전기적 작업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인격적 공작 작업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들 간 정책 중심의 전망적 자질연구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과정은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은 실종되었고 인물중심의 부정적인 선거운동이 만연하게 되었다.

IV. 미국 대통령의 자질연구

한국 대통령 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한계 아래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바람직한 자질에 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 연구는 몇몇 연구들, 예를 들어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2002)와 한국정치학회(2007)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

3) 미국의 경우, 대통령 연구자들은 국방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연구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성격 및 심리학적인 측면의 사실서술과 이에 따른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일반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이론적 가설들을 어떤 수학적 모델로 조작화 또는 단순화 시킨다(Miller, 1993). 또한 실제적인 수치자료를 수집하여 그 수학적 모델을 통계학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그 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증명해 보이는 경험적 또는 계량화된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이론적 성숙기반을 다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 그리고 다른 선진국가의 경우 수상을 포함한 정부수반의 정책순위를 잘 반영하는 예산 및 재정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및 정부수반의 지도력을 연구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조작화가 용이하여 계량적 접근 방법의 경향이 높다(예를 들면, Beck, 1982; Kamlet and Mowery, 1987).

대 한국 대통령들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김충남, 2006), 임기가 비합법적으로 길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외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경향이 높았던 한국 대통령들의 리더십 분석을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여 성공적 리더십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미국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한 분석은 한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질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삼권분립·견제와 균형 등 정치적 제도로서 대통령제의 원형이며 다소 상이점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제와 가장 가까운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간 대통령 리더십 변수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의 중요성도 높다. 즉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자세한 함성득, 2007 참조).

또한 아직 한국 대통령의 역사는 미국과 비교할 때 대통령 자질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충분한 리더십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많게는 9명 적게는 7명 정도의 리더십 사례 분석만으로는 그 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가 어렵고 자의적 해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미 42명의 역대 대통령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풍부한 리더십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의 성공적 리더십 모색에 좋은 자료가 된다.⁴⁾ 즉 시간의 흐름을 따라 크게 변화하여 온 미국 대통령의 자질 연구를 그 특징과 한계점에 기초하여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

4) 다만 본 논문은 미국의 대통령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 범위를 특정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personal leadership)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조직을 중심으로, 즉 ‘조직적 대통령제’(organizational presidency) 또는 ‘제도적 대통령제’(institutional presidency)에 기초하여 국정운영을 시작한 ‘현대적 대통령제’(modern presidency)하의 대통령 리더십에 국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에만 치중된 ‘고전적 대통령제’(classical presidency)는 청와대 비서실 체제의 보좌에 기초한 현재 한국 대통령의 자질을 연구하기에는 그 적용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자질연구에 있어서도 초대 Washington 대통령부터 Hoover 대통령 까지를 고전적 대통령제(1788-1933)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자질 연구들을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반면 정치학자 또는 대통령학 학자들은 체계적인 보좌조직에 기초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한 Franklin Roosevelt 대통령부터 현재의 George W. Bush 대통령 까지를 현대적 대통령제(1933-현재)라고 규정하고 이들 대통령들의 자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Greenstein, 2000; Pfiffner, 1994; 함성득, 2007).

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건국 이후 42명의 대통령들은 시대의 요구나 국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자질과 지도력에 따라 국정운영 결과와 평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예해방을 둘러싼 미합중국 붕괴위기시의 Lincoln 대통령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감격과 경제 번영기에 취임한 Eisenhower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각자에게 요구되었던 대통령의 리더십 형태에 따른 덕목과 자질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학 학자들은 현대적 대통령제 아래서 성공한 미국 대통령들은 각자가 처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최소한 일관된 리더십과 그 핵심적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Gergen, 2000; Greenstein, 2000; Lonnstrom and Kelly, 1987; Simonton, 1987 참조). 즉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은 국가적 위기 아래서 비전제시 능력이 뛰어났고 원만한 여야관계를 통해 정책의 법률화에 성공하고 이를 기초로 지지층의 확대를 이룩했다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07 참조).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의 리더십 분석과정에서 그들의 성공 요인을 보다 쉽게 찾아보기 위해 대조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의 리더십들과 관련 그 자질 면에서의 특징을 Gergen(2000), Glass(1985), Greenstein(2000)⁵⁾, 그리고 Miller(1998) 등의 연구를 기초로 살펴보면 첫째, ‘명확한 국정비전의 결여’(a lack of vision)이다. 실패한 대통령들은 대부분 그들의 임기동안 이룩해야 할 국정목표가 없거나, 있어도 명확치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들은 당선되면서부터 그의 국정비전을 기초로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간의 ‘정치일정’(political agenda)을 마련해야 한다. 즉,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정치일정을 주도적으로 조정·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미국의 대통령 연구자들(Gergen, 2000; Greenstein, 2000; Miller, 1998)은 다른 어떤 자질보다도 ‘비전제시능력’의 현실적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5) 구체적으로 Greenstein(2000)은 성공한 대통령의 자질적 조건으로 Vision, Public Communicator, Organizational Capacity, Political Skill, Cognitive Style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Gergen(2000)은 Leadership starts from within, A central compelling purpose, A capacity to persuade, An ability to work with the system, A sure, quick start, Strong, prudent advisors, Inspiring others to carry on the miss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타협능력의 결여’(inability to compromise)이다. 실패한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의회, 언론 등 정치·사회의 제도적 기관들을 경시하고 원래의 자기집단을 중시하며 매우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을 택하였다.

셋째, ‘미숙한 정치적 기술’(poor political skills)이다. 이는 타협능력 결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정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정치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연관해서 결과적으로 ‘소통능력의 결여’(inability to communicate)이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과 정치적 기술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국민, 의회, 언론 등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며 소통을 통한 이해보다는 일반적인 선전을 선호하게 되어 대통령을 더욱 고립시킨다.

다섯째, ‘부정직성’(dishonesty)이다. 대통령의 부정직성에 따른 국정운영의 실패는 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Clinton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의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다섯 가지 실패한 리더십의 특징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격의 결여’(bad character)이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화 및 정치화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적 감각과 정서적 안정성을 갖춘 성숙된 인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표 1>은 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표 1> 미국의 실패한 대통령들의 특징

미국의 실패한 대통령들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국정비전의 결여(a lack of vision) ·타협능력의 결여(inability to compromise) ·미숙한 정치적 기술(poor political skills) ·소통능력의 결여(inability to communicate) ·부정직성(dishonesty) ·인격의 결여(bad character)
---------------------------	---

결과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자질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대통령의 자질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국정비전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국정능력자질’(competence), 둘째, 도덕성과 정직성 등을 강조하는 ‘인격자질’

(character), 셋째, 외모, 유머, 부드러움 등의 ‘개인적 매력’(personal attract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Glass, 1985: 524-525). 이러한 자질 중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망적 자질 측면의 ‘비전제시능력’이 중요하며 타협능력, 정치적 기술, 소통능력 등과 함께 성숙된 인격과 높은 정직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Gergen, 2000; Greenstein, 2000). 이제 전망적 자질 면에서 ‘비전제시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미국 대통령의 자질연구를 기초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자질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V. 한국 대통령 자질연구의 새로운 방향: 전망적 자질의 중요성

이제 위에서 살펴 본 미국 대통령의 자질연구를 기초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특히 자질연구의 이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본 논문은 한국 리더십 및 자질연구의 이론적 제한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질연구는 그 ‘자의적 해석’을 줄이기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너무 특정 대통령의 자질에만 치중하면 일관성 있는 객관화와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에서 ‘X 요인’으로서 자질연구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

실례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 덕목으로서 ‘성숙된 인격’과 관련된 논쟁이다. 성숙된 인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질로서 대통령 자신의 성장과정 즉 집안배경, 교육과정, 사회 및 정치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적 성숙’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숙된 인격은 국가적 위기 아래서 대통령의 평정심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직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균형적 통찰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성숙된 인격을 통한 평정심 유지는 ‘대통령직의 권위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대통령의 인격적 성숙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여 자신과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손하게 받아들여 이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격적 성숙의 현실적 중요성은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어렵다. 또한 그에 대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낮아서 이론적으로 토론과 논리를 전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본 논문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로서 자질연구 역시 조작적 정의나 이론화가 어려운 ‘ 좋고 나쁜 덕목의 연구’가 아닌 미국처럼 전망적 판단에 기초한 ‘대통령 국정비전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좋은 자질과 나쁜 자질의 규정과 측정은 이론적으로 그 추상성이 너무 높고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좋은 자질의 중요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질연구의 이론적 추상성 정도를 조금 낮추면서 동시에 그 현실적 적용성을 조금 높이는 방향에서, 즉 자질 요인 중 비전제시능력을 강조하는 전망적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Burns(2006: 40)는 “...리더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가장 강력한 요소는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비전제시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전제시능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이념 및 목표를 제시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나 공약의 열거를 넘어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 달성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능력이다(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 Greenstein, 2000).

한국적 상황에서 전망적 판단에 기초한 비전제시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던져주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⁶⁾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물론 자신이 집권동안 직면하는 정치, 경제,

6)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2000)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의 핵심 자질로서 ‘비전제시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도덕성’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는 이들 자질항목별 중요도의 가중치를 93명의 전문가에 의해 도출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전제시(0.23), 인사관리(0.20), 민주성(0.20), 위기관리(0.19), 도덕성(0.18) 등의 순이었다(중요도 가중치 도출 방법론은 함성득·임동욱·곽승준, 2004 참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도 전망적 자질 측면에서 비전제시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 후보자들의 비전제시능력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후보자의 정치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메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윤재, 2003; 2007). 아울러 비전제시능력이 강조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의 ‘메니페스토’ 운동처럼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에 한해서는 그 후 공약이행에 대한 결과까지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헛공약’을 줄이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질 중에서 비전제시능력을 제외하고 도덕성, 청렴결백성, 강직성, 정직성, 정치력 등의 다른 자질들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회고적’(ret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회고적 자질’이다. 예를 들어 도덕성은 대통령 후보자의 과거를 되돌아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이 앞으로 도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결격사유가 되고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과거에 흠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패배는 이러한 도덕성에 기초한 국민들의 회고적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 관련 병역비리에 대한 논란은 건국 이후 산업화 시절을 거쳐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심에 기초한 회고적 판단들이 국민의 선택을 좌우했다.

한편 이러한 회고적 판단에 기초한 자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전망적’(p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전망적 자질’이다. 전망적 판단은 대통령 후보자가 앞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고적 판단에 기초한 도덕성, 정직성, 정치력 등의 회고적 자질은 전망적 판단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하며 도리어 비전제시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적 현실의 어려움은 회고적 판단의 기초인 ‘과거’는 ‘사실’로 존재하여 확인하기가 쉽지만 전망적 판단의 기초인 ‘미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많은 학자들이 전망적 판단의 근거로 말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후보자 자신의 깊은 삶의 과정에서 아닌 참모들에 의해 급히 마련된 단순한 장밋빛 공약이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능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의 현실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보듯이 후보자 상대방의 회고적 자질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정치적 흠집을 내고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부정적 선거운동’(negative campaigning)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이

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한국 정치 시스템이 발전되어 후보자의 회고적 자질에 기초한 회고적 판단과 전망적 자질에 기초한 전망적 판단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전망적 판단이 회고적 판단에서 도출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대통령 후보자가 겪은 삶의 발자취에 대한 회고적 판단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전망적 판단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과도기적으로 후보자의 회고적 자질 연구보다는 비전제 시능력을 강조하는 전망적 자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회고적 자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국의 대선과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흠집을 쫓는 이전투구의 싸움장이 지속되어 우리의 정치과정은 더욱 부정적 선거운동의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VI. 결 론

위에서 본 논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와 관련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그 이론적 및 현실적 중요성과 제한점을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성공한 대통령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문헌고찰을 기초로 미국 대통령 자질연구의 접근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를 기초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특히 자질연구의 이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본 논문은 한국 리더십 및 자질연구의 이론적 제한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질연구는 그 ‘자의적 해석’을 줄이기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로서 자질연구 역시 조작적 정의나 이론화가 어려운 ‘좋은 나쁜 덕목의 연구’가 아닌 미국처럼 전망적 판단에 기초한 ‘대통령 국정비전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좋은

자질'과 '나쁜 자질'의 규정과 측정은 이론적으로 그 추상성이 너무 높고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좋은 자질의 중요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질연구의 이론적 추상성 정도를 조금 낮추면서 동시에 그 현실적 적용성을 조금 높이는 방향에서, 즉 자질 요인 중 비전제시능력을 강조하는 전망적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전망적 판단에 기초한 비전제시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정직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회고적 자질 연구보다는 비전제시능력 등 전망적 자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회고적 자질을 강조하면 한국의 대선과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흠집을 쫓는 이전투구의 싸움장이 지속되어 우리의 정치과정은 더욱 부정적 선거운동의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적 자질 중심의 대통령 리더십 연구는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와 함께 학제간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비전제시능력을 검증하는 새로운 경험적 또는 통계적 연구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광모. 1984. 《대통령론: 지도자의 개성과 유형》. 서울: 고려원.
- 김종석. 2006. “대권주자 심리분석.” 《신동아》 5월호.
- 김충남. 2006. 《국가경영과 대통령》.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호진. 1997.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 김호진. 2006. 《대통령과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 김혁·함성득. 2004. “새로운 거버넌스 하의 미국 대통령-의회관계의 발전적 변화.” 《한국행정논집》 1-16.
- 박세일. 2002.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 박세일(편), 《대통령의 성공조건 I》, 83-139. 경기도: 나남.
- 손혁재. 2007. “세계화 시대와 충무공의 복합 리더십.”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세미나.
- 안병만. 1998. “역대 통치자의 리더십 연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 이남영. 1996. "21세기 새로운 정치지도자상." 한국정치학회 정치포럼.
- 이정식. 1994. 《기사로 안 쓴 대통령 이야기》. 서울: 동학사.
- 이종범(편). 1994. 《전환시대의 행정가》. 경기도: 나남.
-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경기도: 나남.
- 정윤재. 2007. "2007년 대한민국과 대통령 선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선정책포럼.
-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 2002.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서울: 조선일보사.
- 한승조. 1992.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서울: 대정진.
- 함성득. 1997. "대통령학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의 연구과제." 《한국행정학보》 1-22.
- 함성득. 1998a. "새로운 국회, 정당, 대통령과의 관계." 《의정연구》 54-77.
- 함성득. 1998b.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리더십." 《한국정치학회보》 391-399.
- 함성득. 2002a.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행정논총》 1-21.
- 함성득. 2002b. 《미국정부론》. 경기도: 나남출판사.
- 함성득. 2003. 《대통령학》(제2판). 경기도: 나남출판사.
- 함성득.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행정논총》 409-441.
- 함성득. 2007. "대통령 리더십 외국 사례와 바람직한 한국 대통령 리더십 모색: 정치적 다수와 대통령을 찾아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한국정치학회(편).
- 함성득·임동욱·곽승준. 2004.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284.
- Andres, Gary, Patrick Griffin, and James Thurber. 2000. "The Contemporary Presidency: Managing White House-Congressional Relations: Observations from Inside the Proces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0(3): 553-563.
- Barber, James. [1972] 1992.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 Nathaniel. 1982. "Parties, Administrations, and American Macroeconomic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pp. 83-93.
- Binkley, Wilfred. 1962. *The President and Congress*, New York: Vintage.
- Burns, James.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 Burns, James. 2006. (조중빈 역).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서울: 지식의 날개.
- Broder, David. 1985. "Editorial,"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1.
- Campbell, Colin. 1993. "Political Executives and Their Officials," In Ada Finifter (ed.), *Political*

- Science*,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Campbell, Colin. 1986. *Managing the Presidency: Carter, Reagan, and the Search for Executive Harmon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ampbell, Colin and Bert Rockman. (eds.). 1996. *First Appraisal: The Clinton Presidency*, Chatham: Chatham House.
- Davis, James. 1995. *American Presidency*,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 Glass, David. 1985. "Evaluating Presidential Candidates: Who Focuses on Their Personal Attributes?" *Public Opinion Quarterly* 49(4), pp. 517-534.
- Gergen, David. 2000. *Eyewitness to Power: The Essence of Leadership from Nixon to Clinton*, New York: Touchstone.
- Greenstein, Fred. 2000. *The Presidential Difference*, New York: Free Press.
- Greenstein, Fred. 1982. *The Hidden-Hand Presidency: Eisenhower as Leader*, New York: Basic Books.
- Hahm, Sung Deuk. 2001. "Presidential Politics in South Korea: An Interim Assessment for the Kim Dae Jung Presidency and Prospect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 pp. 71-86.
- Hahm, Sung Deuk and Chris Plein. 1997. *After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residency and Bureaucrac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ahm, Sung Deuk and Chris Plein. 1996.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the President," *Comparative Politics* 27, pp. 55-76.
- Hook, Sidney. 1943. *The Hero in Histor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 Kamlet, Mark and David Mowery. 1987. "Influences on Executive and Congressional Budgetary Priorities, 1955-1981,"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pp. 155-178.
- Kernell, Samuel. 1986. *Going Public: New Strategi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 Lasswell, Harold. 1930.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uchtenburg, William. 1963. *Franklin Roosevelt and the New Deal*, New York: Harper & Row.
- Lonnstrom, Douglas and Thomas Kelly. 1997. "Rating the Presidents: A Tracking Stud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3), pp. 591-598.
- Miller, Gary. 1993. "Formal Theory and the Presidency," In George Edwards, John Kessel, and Bert Rockman (eds.), *Researching the Presidency: Vital Questions, New Approaches*.

-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iller, Nathan. 1998. *Star-Spangled Men: America's Ten Worst Presidents*, New York: Touchstone.
- Nathan, Richard. 1986.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New York: Macmillan.
- Pfiffner, James and Roger Davidson. (eds.). 1997. *Understanding the Presidency*, New York: Longman.
- Pfiffner, James. 1994. *The Modern Presidency*, New York: St. Martin's Press.
- Pika, Joseph. 1982. "Moving beyond the Oval Office: Problems in Studying the Presidency," *Congress & the Presidency* 9(1), pp. 17-36.
- Rossiter, Clinton. 1960. *The American Presidency*, New York: Mentor Books.
- Schlesinger, Arthur, Jr. 1973. *The Imperial Presidency*, Boston: Houghton Mifflin.
- Shugart, Matthew. 2004. "Elections: The American Process of Selecting a President: A Comparative Perspectiv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3), pp. 632-656.
- Simonton, Dean. 1987. *Why Presidents Succe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ayne, Stephen. 1978. *The Legislative Presidency*, New York: Harper and Row.
- Whitcomb, John and Claire Whitcomb. 2000. *Real Life at the White House*. New York: Routledge.